metro

커플룩 가고 시밀러 룩 시대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절치부심' 윤석민 부활조짐

"애들아 부활하라!" 예수 부활대축일인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신도들이 염수정 추기경의 강론을 들으며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어른이어서 부끄러운 대한민국

무사안일·시스템 붕괴가 꿈나무들 수장시켜
골든타임 놓친 해경, 대응미숙 중대본 각성을

"무능하고… 안일한 어른들이 너희들을 사지로 몰아 넣었구나. 어른이어서 정말 부끄럽다."

이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기성세대의 무사안일이 한창 꿈을 키워나가야 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아 버렸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전 국민이 깊은 반성과 함께 큰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일로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시계는 16일 오전에 멈춰버렸다.

차가운 바다 속에 갇힌 실종자들을 언제 구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바다 위를 맴도는 구조대의 모습과 나오는 똑같은 뉴스를 보는 시민의 입에서는 속절없이 한숨만 나온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무력한 시스템을 아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객선 회사는 화물 과적과 부적절한 구조 변경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다수는 긴박한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먼저 탈출했다. 정부는 우왕좌왕 실종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언론은 세월호 사고 이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 경쟁을 하고 있다. 비정한 유언비어마저 나돌아 실종자 가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2월 완성 재난대응체계 구멍

현 정부의 재난대응체계의 설계도격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난해 대수술을 거쳐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핵심은 안행부에 범정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사회재난의 총괄기능을 안행부에 맡기는 것이다.

새 법 이전에는 대형 재난이 터졌을 때 방재청이 인적재난의 총괄기능을 담당했다. 방재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안행부로 사회재난 총괄기능을 이전하면서 방재청의 전문인력은 흡수하지 않는 등 준비가 불충분하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런 지적은 새 기본법 시행 후 약 두 달 만에 터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사고접수 후 한 시간 가까이 지나 꾸려진 중대본은 각 기관이 보고하는 숫자를 모으는 역할 밖에 하지 못했고, 그나마도 부정확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분노를 샀다. 중대본이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의 역량을 보강,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해양경찰청 초동대응 안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1차 대응 기관은 해양경찰청이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초동대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선박이 급속도로 빠르게 침몰하고 있는데도 해경은 선박에 접근하고 나서 해상구조에 집중했다. 선체 대부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30분 가량이 지난 뒤인 16일 오전 11시 24분쯤에야 잠수부가 최초로 투입됐으나 그 인원도 20명에 그쳤다.

생존에 필요한 사고 초기의 금쪽같은 시간인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해경은 18일에야 잠수부를 400여명으로 늘리고 민간 잠수방식을 시도했다. 선체의 침몰속도를 고려해 초기부터 잠수 준비를 서둘렀다면 조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부실한 운항관리자 제도

부실한 선원 교육이나 허술한 출항 전 선박 점검도 대형사고를 부추겼다.

선원 교육과 출항 전 선박점검은 여객선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한국해운조합에 위임돼 있다. 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이익단체가 선박의 안전운항에 직결된 요소인 출항전 점검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안전운항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이번 사고 같은 대형 참사를 낳은 것이다.

운항관리자는 내항 여객선사·안전관리담당자는 물론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해야 하고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여객선의 승선 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그 밖에 운항질서 유지 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와 그 밖의 항해용구가 완비돼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나 선장이 선내에서 비상훈련을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일도 운항관리자의 임무다. 이런 사항들은 모두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허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다. 결과적으로 부실한 운항관리자 제도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심리 전문가들은 전 국민이 분노와 함께 죄책감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리 나사렛대 상담센터 교수는 "국민의 슬픔은 당연하다"며 "기성세대가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각성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민준기자

바지선 정박 20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 해상에 침몰한 세월호의 선수 부분에 바지선이 정박, 잠수사들이 모여들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조타기 2주 전 이상 징후

전원접속 불량 수리 의뢰

세월호는 침몰 2주 전부터 조타기에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이 지난 1일 작성한 세월호 수리신청서를 보면 '조타기 운항 중 No Voltage 알람이 계속 들어와 본선에서 자상전원 복구 및 전원 리셋시키며 사용 중이니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치 못했습니다'라며 '상기의 부분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수리 의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됐다.

이는 조타기 전원 접속이 불량해 전원 리셋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니 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세월호 1등 기사가 작성한 이 문서에는 기관장, 선장, 상무, 사장 등의 결재 서명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후 조타기 결함 부분에 대해 수리가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사건이 지난 16일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불과 침몰 2주 전까지도 조타기 결함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조타기 결함 가능성에 대해 조타수 조모(55·구속)씨도 18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항해사 지휘에 따라 평소대로 조타키를 돌렸다. 바지만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조타키가 유난히 빨리 돌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일 "수사 핵심인 변침 이유를 (침몰 순간 운항을 맡았던) 3등 항해사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다른 피의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정부, 진도·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전라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20일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된다. 안산시와 진도군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등에 이어 7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호 작업과 복구·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등의 세제 혜택도 이루어진다. /정혜인기자 hjune0404@

현장지원 중 다친 해군병사 끝내 사망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투입된 해군 대조영함(4500t) 내에서 작업 중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해군 병사 1명이 끝내 숨졌다.

해군 관계자는 20일 "지난 15일 대조영함에서 화물승강기 작업을 하다가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된 승조원 윤모(21) 병장이 어젯밤 숨졌다"고 밝혔다.

윤 병장은 여객선 세월호 승객 구조와 탐색지원에 나선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소속으로 당시 지원 임무를 수행하다가 머리를 다쳤다. 그는 헬스헬기로 제주 한라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왔다.

해군은 윤 병장이 임무수행 중 숨졌다고 판단하고 순직처리할 예정이다. 영결식은 22일 오전 10시 제주방어사령부 연병장에서 진행된다. /김민준기자

진도VTS "구호조치" 지시

31분 교신 동안 승객 대피 안 이뤄져

세월호가 사고 당시 제주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데 이어 진도VTS와도 31분간 교신한 내용이 공개됐다.

당시 진도 VTS는 교신 때 "구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55분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진도VTS와 교신을 시작했다. 이후 오전 9시 37분까지 31분간 11차례 진도 교신했다.

사고 지점인 병풍도 북쪽 3㎞ 지점은 진도VTS 관제 구역이나 제주가 목적지인 세월호는 당시 교신 채널을 제주VTS에 맞춰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들은 진도VTS는 세월호 항해사에게 긴급 구호조치 지시를 내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진도 VTS는 9시 7분께 "지금 침몰 중이냐"고 묻자 세월호는 "그렇다. 해경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진도 VTS는 인근에 교신 중이던 다른 선박에 구조 협조를 부탁했고, 이어 9시 10분께 세월호의 상황을 묻자 "너무 기울어져 있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세월호는 응답했다.

9시 23분께 진도 VTS가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라고 지시했고 세월호가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최대한 나가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및 두꺼운 옷을 입도록 조치하라. 라이프링(구명대)이라도 착용시키고 띄우라. 빨리"라고 강력한 주전을 전했다. 당시 진도VTS와 교신을 한 선원은 세월호의 선임급 항해사로 확인됐다.

진도VTS가 바다에 뛰어들 승객들에 대비해 구명조끼와 구명벌 투하를 지시한 상태였는데도 교신이 이뤄지는 31분간 선장 이준석(69)씨는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피해를 키웠다. /윤다혜기자 yah@metroseoul.co.kr

가로막힌 실종자 가족들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들이 20일 오전 청와대 항의 방문을 시도하다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교 인근에서 경찰에 가로막히자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 가족들 "구조에 집중" 요구

청와대 향하려다 경찰과 대치 사망자 58명으로

세월호 선체수색과 구조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격실에서 잇따라 시신을 수습했다.

격앙된 실종자 가족들은 20일 '청와대행'에 나섰다. 진도대교에서 경찰과 3시간여 동안 대치하다가 정홍원 국무총리의 면담 약속을 받고 청와대행을 멈추어 가도 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함정 204척, 항공기 34대, 잠수사 563명을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

민관군 합동조사단은 19일 4층 격실에 처음 진입해 시신 3구를 수습한 데 이어 20일 오전 7시 25분 격실에서 시신 10구를 추가로 수습했다. 20일 오후 10시 현재 사망자는 모두 58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244명이다.

시신 16구가 격실 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생존자들이 여객선이 침몰하려는 순간 격실로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이날 낮 12시 9분에 이어 오후 5시 55분 등 물흐름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에 맞춰 선체 진입을 집중적으로 시도했다.

실종자 가족 100여명은 정부의 조속 대처를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려다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진도대교 인근 왕복 2차로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가족들은 3시간여동안 갓길에 앉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고 절규했다. 한때 가족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족들은 "경력(경찰)을 당장 철수하고 청와대에 가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하다가 정 총리와의 면담을 약속받고 진도체육관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후 정 총리와의 면담에서 선체 인양 방식을 논의한 것도 알려졌다. 가족 대표단은 전체 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선체 인양보다는 구조에 집중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민준기자 mik.m@

단원고 24일부터 수업재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휴교 중인 안산 단원고가 24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

정삼영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24일부터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들의 심리안정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과 교육을 병행해 진행한다.

교육청은 단원고가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교 회복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생존자 수색에 전념한다

대책본부 "생명 위협 선체인양·파공 안 해"

세월호 침몰 닷새째인 20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선체를 인양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구조작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체 인양과 파공 등 실종자 가족 대표의 요청으로 일반인들이 제안한 다양한 구조 방법이 자칫 생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체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개척돼 이전 보다 수색작업이 수월해진 만큼 현재의 잠수 진입방식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세월호 선체에 가이드라인이 5개까지 설치돼 있어 동시다발적인 구조 작업이 가능해다는 게 대책본부의 설명이다.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날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선내로 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여러 개 개척했다"며 "선체 중앙부 옆 부분과 선수 부분 등에 가이드라인 5개를 만들어 잠수요원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선체 내 구조작업이 수월해진 만큼 563명의 잠수요원 등을 대거 투입해 집중수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민간 자원봉사 잠수사들은 위험을 감안해 심사를 거친 뒤 구조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성급한 선체 인양이나 절단 후 진입 등은 선체가 흔들리면서 자칫 에어포켓으로 바닷물이 밀려들어 되레 생존자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다혜기자 [illegible]

선생님 가시는 길 20일 오전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목숨을 잃은 남윤철 선생님의 장례식이 경기도 안산 제일장례식장에서 열린 가운데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무원 지시만 따르면 안전"

이 선장 과거 인터뷰 논란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사진)씨가 "승무원 지시만 따르면 배는 안전하다"고 한 과거 인터뷰 내용이 공개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선장은 4년전 OBS와 인터뷰에서 "우리 인천~제주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분은 다음에 오셔도 안전하고 쾌적하고, 우리 승무원들 지시만 따라서 행동하시면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2014년 1월 제주투데이와 인터뷰에서는 30년 바다 인생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배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다"며 "배에서 내릴 때면 섭섭한 마음에 다시 한번 배를 쳐다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비록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명절때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위안을 얻는다며 "오늘도 내일도 배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수백명의 고교생을 비롯한 승객들이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대피할 엄두를 못 내는 사이 첫 구조선을 타고 배에서 탈출한 이 선장의 모습과 대조적인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김민준기자 [illegible]

'허위 인터뷰' 홍씨 체포 나서

경찰은 여객선 세월호 구조작업 현장에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한 홍모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0일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만간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홍씨가 명백히 거짓말을 했거나 신뢰할만한 사람으로부터 듣고 발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홍씨는 18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MBN과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았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실제 잠수부가 배 안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승준기자

단원고 희생자들 비통함 속 발인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장례식이 20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5시께 안산제일장례식장에서 2학년 4반 장진용 군의 발인식이 유족 20여명과 친구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후 한시간 간격으로 같은 반 안준혁 군, 6반 담임 남윤철 교사, 3반 담임 김초원 교사의 장례식이 차례로 치러졌다.

또 동안산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던 3반 전영수 양의 발인식은 오전 3시 30분께 열렸다. 4반 김대희 군의 장례식은 이날 오전 11시 온누리병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발인 예정이었던 박지우 김소정 이다운 이혜경 등 학생 희생자 4명의 유가족은 다른 유가족들과 합동 장례식을 논의하기로 해 발인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 오전 8시 15분 안산세화장례식장에서 고 최혜정 교사의 발인이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엄수됐다. /윤다혜기자

IT업계, 세월호 애도물결 동참

이통사 보조금 경쟁자제 행사 연기도

IT 업계도 세월호 애도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게임 업계는 행사를 미루고 이동통신 3사는 경쟁사 비방전을 일시 중지했다.

NHN엔터테인먼트 자회사 NHN블랙픽은 20일에 예정됐던 축구 게임 신작 '위닝 일레븐 온라인 2014'의 사전 공개 테스트 일정을 24일로 연기했다. NHN블랙픽 측은 "사전 공개 테스트 준비는 완료됐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서비스를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9일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진행하기로 한 블레이드&소울의 첫번째 게임 방송 대회 '블레이드&소울 비무제' 임진록'을 취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토너먼트 경기와 함께 프로게이머 임요환 선수의 이벤트 경기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 해설이 열릴 예정이었다. 행사 재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기업들도 서비스 출시 일정을 미루거나 홈페이지에 추모 배너를 띄우며 세월호 참사 애도를 표하고 있다.

영업정지 중인 이통 3사는 모처럼 차분한 분위기다.

앞서 통신 업계는 경쟁사의 보조금 과다 지급 및 신규 가입자 불법 모집 의혹을 제기하며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를 불법 영업 혐의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LG유플러스도 상대 회사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등 최근까지도 치열한 공방을 거듭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통신 3사는 사고 현장에 이동 기지국을 급파하며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업정지 관련 보도자료 발표도 감소했다. /정윤희기자 [illegible]

덕성여대, IBK 등과 협약

덕성여대가 최근 서울시 수유동 호텔아카데미하우스에서 덕성여대 홍승용 총장·IBK기업은행 김영규 부행장·㈜쉘에스씨푸드 ㈜금성침대·㈜동성제약 ㈜동회세상에듀코 랜디자인 등 15개 기업의 대표를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식 문화 형성 활동

경희사이버대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개선 영화 제작 및 무료 배급 사업을 진행하고 건전한 장애인식 문화 형성 활동을 펼쳤다.

경희사이버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지난 3월 공개한 장애인식개선 단편영화 'kitchen 1015'를 DVD로 제작해 14일부터 무료 배포하고 있다.

점자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서울지하철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6월말까지 시각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편의를 위해 점자안내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핸드레일 게이트·화장실·승강장 안전문 등에 설치된 점자안내표지판 중 훼손되거나 위치 부적정, 오래된 정보가 담겨 있는 120개 역의 1880개소이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0월23일~12월21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120개 역 1만7293개 점자안내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서울메트로는 향후 점자안내표지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원 늘린 사립대 재정지원 '불이익'

앞으로 사립대가 입학정원을 늘리게 되면 구조개혁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정원 감축을 고려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정원 동결이나 감축을 권장하기로 했다.

단 국립대는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수도권의 대학 중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설된 지 8년이 안 된 소규모 대학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대학은 정원을 이에 증원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맞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원확보율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yd@

건강체중 3·3·3 참여 모집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소는 주민들의 비만율 감소를 위한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신에 맞는 개별 맞춤형 체중 감량 및 유지 전략을 세우고 이웃과 함께 실천할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용산, '여성안심귀가' 운영

서울시 용산구는 12월까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를 운영한다.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1시에 역이나 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용산구청 상황실(2199-6300)이나 용답소(120)로 신청하면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동행해 준다.

국새 등 9점 25일 돌아온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반환··대한제국 '황제지보' 등 포함

우리나라에서 불법 반출됐다가 미국에서 압수된 국새와 어보 등 인장 9점을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5~26일 한국 방문 때 반환하기로 한미간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내 국새·어보 등 인장 11점 가운데 9점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반환하는 것으로 거의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인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에 의해 압수된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순종이 고종에게 태황제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1907년 제작한 '수강태황제보', 조선왕실에서 관리임명에 사용된 '유서지보'를 비롯한 국새와 어보 등 9점이다.

이 인장은 한국전쟁 때 한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 반출한 것으로, 한미 양국의 공조로 지난해 11월 HSI에 의해 압수됐다.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원래 소유국에 돌려주도록 한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이 인장은 몰수 등 미국 내 절차를 마친 뒤 애초 6월께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반환 시기가 앞당겨졌다.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인장 중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는 이번 반환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윤기자 ...@metroseoul.co.kr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방한 때 반환되는 국새와 어보 9점. /문화재청 제공

의협, 노환규 회장 탄핵안 가결

첫 중도퇴진 불명예

노환규(사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협 설립 후 처음으로 탄핵된 회장이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73.6%)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이 가결됐으며 이날로 노 회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번 결정은 의협의 집단 휴진과 이후 진행된 의정 협의과정에서 노 회장의 대정부 투쟁 방식에 불만을 가진 대의원회와 노 회장의 갈등이 깊어진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노 회장은 3년 임기로 지난 2012년 5월 취임해 1년의 임기를 남긴 상황이며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정으로 중도 퇴진된 첫 회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와 함께 의협은 총회 후 곧바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경수 의협 부회장 겸 부산시의사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노 회장이 이번 불신임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총회 직후 노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회원이 세월호보다 200배는 더 큰 의협이라는 배를 버리고 떠날 것이냐고 물었다. 사실은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고 떠날 수 없었다. 앞으로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노 회장은 총회에 앞서 1만6376명의 회원 중 92.8%가 탄핵을 반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장애인 배려·서비스 소개

서울시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생활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할 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배려 시설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시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저상버스 노입확대,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시설 확대) ▲보행환경 개선(음향신호기 증설, 보행장애물 개선, 유노블럭 횡단보도 턱 낮추기) ▲장애인 우선 이동편의 서비스(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주차구역) 등을 시행해 왔으며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 까지 총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예정이다.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The 6th Shinhan Music Awards

제6회 신한음악상 모집요강

- 참가대상
  - 1996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해외 정규 음악교육 경험이 없는 자
- 참가부문
  -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성악 (4개 부문)
- 일정
  - 접 수 기 간 2014년 4월 1일 ~ 5월 2일
  - 서 류 심 사 2014년 5월 7일 ~ 5월 9일
  - 예 선 2014년 5월 13일 ~ 5월 16일
  - 본 선 2014년 5월 19일 ~ 5월 20일
  - 수상자 발표 2014년 5월 23일 (예정)
  - 시 상 식 2014년 6월 중 (예정)
- 신청접수
  - 신한음악상 홈페이지 내 참가신청 (www.shinhanmusic.co.kr)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
- 시상
  - 신한음악상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성악 각 부문 1인 선발)
  - 은행장특별상 수상자 없는 부문 심사위원 전원의 추천으로 1인 선발
- 수상자 특전
  - 신한음악상 수상자
    - 장학금 1,600만원 (4년간 매년 400만원씩 지급)
    - Young Artist Challenge (해외 유명 음악학교 마스터클래스)
    - 신한아트홀 무료대관 (총 2회)
  - 은행장 특별상 수상자
    - 장학금 400만원 (1회 지급)
    - 신한아트홀 무료대관 (총 2회)
- 접수 및 문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7가길 43-8 (서초동 1434-7) 3층 신한음악상 사무국
  - E-mail shinhanmusic@artsplay.co.kr
  - Tel 02-502-0525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사막도 아닌데 신기루?

metro Guatemala

운전자 낮시간 주의

¡Cuidado en la carretera!

최근 과테말라에서 도로 위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기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과테말라의 기후 때문이다. 과테말라는 적도 부근에 위치해 1년 내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쬔다. 특히 아스팔트는 짧은 시간안에 기온이 올라가 주변과 다른 빛의 굴절 현상을 빚게 된다. 이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가 바로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던 물체가 갑자기 눈 앞에 나타나면 운전자들은 급정거를 하거나 차선을 벗어나 사고로 많으질 수 있다.

신기루 현상뿐만 아니라 강렬한 태양 그 자체도 위험적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밖으로 나올 때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빛이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이른 시간에 길을 나서고 햇빛이 강렬한 한 낮에는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한다.

과테말라 나디얼 오르도녜즈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게 좋다"면서 "컨택트 렌즈에도 햇빛을 거르는 필터가 있지만 개별 맞춤된 렌즈가 있는 선글라스가 더 적당하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졸업식 단상 '셀카 금지'

美 동부 대학, 총장 졸업장 수여 시간 지연 방지 대책

미국에서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졸업 시즌을 앞두고 한 대학이 '졸업식 셀카 금지령'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동부 로드아일랜드주 브라이언트대학의 로널드 마취톨리 총장은 최근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5월에 있을 졸업식 단상에서 셀카를 찍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졸업식 때 대학 총장이 졸업생을 한 명씩 단상으로 불러 졸업장을 준다. 직접 악수를 건네며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새 출발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영예로운 졸업장 수여식 단상은 셀카 파티장으로 변했다. 졸업생 대부분은 단상에서 졸업장을 받는 것은 뒷전이고 셀카를 찍느라 여념이 없다.

최근 한 학생이 로널드 마취톨리(오른쪽) 브라이언트대학 총장과 캠퍼스에서 촬영한 사진 /뉴욕타임스

브라이언트대학의 경우 지난해 졸업식 때 학생들이 너나할 것 없이 셀카를 찍는 바람에 졸업식이 '무한정' 길어졌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셀카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마취톨리 총장은 "올해 졸업생은 850명이나 된다"면서 "졸업생들이 단상에 올라와 졸업장을 받고 총장과 악수하는 장면은 전부 학교 측 전문 사진작가가 찍어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사 시작 전 졸업식장 주변의 대형 전광판 등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감사·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ul@metroseoul.co.kr

美 콜로라도주 마리화나 축제 19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시빅 센터 공원에서 열린 '마리화나 축제' 참가자들이 춤을 추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최초로 오락용 마리화나의 판매를 합법화 했다. /AP 연합뉴스

미국 지폐 오염 '상상초월'

박테리아 등 3000종 검출

미국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대학교 연구진이 1달러 짜리 지폐 80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각종 박테리아와 세균, 곰팡이 등 3000여 종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3000여 종의 유전자 가운데 인간 관련 유전자는 분석이 가능했지만 박테리아 유전자는 20%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흔한 오염물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세균이었다. 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유발균도 많이 나왔다. 특히 일부 박테리아는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는 '수퍼 박테리아'로 확인됐다.

연구를 진행한 제인 칼튼 박사는 "검사 결과에 상당히 놀랐다"면서 "미생물이 단순히 지폐에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폐에서 자라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돈은 물을 흡수하지 않아 미생물 오염도가 낮은 편이라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종이와 면으로 만들어진 지폐는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미생물이 자라기에 안성맞춤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지폐를 넣은 지갑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라기에 좋은 온도와 환경이 조성된다. /조선미기자

폴란드·에스토니아서 미국 지상군 군사훈련

미국이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 수주 내 군사 훈련을 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주요 외신들은 서방 관리의 말을 인용, 이 훈련에는 약 150명의 병력이 참여할 수 있으며 동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훈련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의 말에 따르면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훈련은 약 2주간 불규칙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군사 훈련 계획은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에 이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폴란드의 토마슈 시에모니아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지상군이 폴란드에 배치될 계획"이라며 "양국 실무자들이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휴대폰 출고가 인하 바람 '솔솔'

LGU+, 'GX' '베가 시크릿업' 50만~60만원대…KT도 동참

최근 계속되는 통신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움직임을 적극 보이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팬택의 주력 스마트폰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를 기존 95만4800원에서 59만9500원으로 37% 인하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LG Gx'의 출고가 역시 89만9000원에서 63만8000원으로 30% 낮춘 바 있다.

LG유플러스측은 고객의 단말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추는 한편,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한 팬택 스마트폰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팬택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출고가 86만원대의 고사양 스마트폰 '갤럭시S5'가 출시된데다 이통사들의 영업정지로 연쇄 통신시장이 냉각돼 내수 위주의 팬택이 스마트폰 판매 저조로 더 힘든 상황"이라며 "출고가 인하에 따른 팬택의 비용부담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동사가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검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그러자 KT 역시 팬택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 인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우리도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를 59만9500원으로 인하하는데 팬택과 합의했다"며 "팬택과 논의해 재고 보상금 등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KT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단독 영업을 앞두고 베가 시크릿업 외에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 수 있는 모델을 추가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 인하 움직임에 대해 팬택은 다소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출고가 인하가 판매 활성화로 이어지겠지만 재고 보상금과 선 구매 물량 등 남아있는 문제들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LG유플러스와 KT 등 이동사들이 성급하게 출고가 인하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팬택 관계자는 "출고가 인하를 놓고 재고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협의중인 상황에서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 인하 발표를 서두른 것은 아쉽다"면서 "LG유플러스측이 도와주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순서는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통사들이 팍삼 우리(팬택)를 돕기 위해서라면 선 구매 물량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인타깝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도 있었던 만큼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카드를 꺼내고 있다"며 "다만 최근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어려운 제조사 상황을 감안하면 재고 보상금 부담, 선 구매 물량 제시 등은 이통사에서 풀어져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정부부처, 中企 지원 '맞손'

화평·화관법 실행력 높여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최근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간 협력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등 양 부처간 협력을 구체화했다.

이는 지난해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한 이후, 산업-환경정책의 실질적 협력을 가시화한 것으로 부처간 협업의 값진 성과다.

첫 번째로 화평법, 화관법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발벗고 나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화학안전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제·개정됐지만, 2015년 화학안전 시행을 앞두고 정보·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양 부처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운영하고 ▲노동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또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녹색경영 대상 공동 개최' 등 다른 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유주영기자 boa@

농협은행 고객감사 이벤트 NH농협은행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행복나눔 이벤트'를 개최한다. /농협은행 제공

류승룡도 반한 배달앱, 인기 비결 '무엇'

위치기반 간편 검색… 바로결제도 가능

스마트폰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는 '배달앱'이 인기다.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이들 앱은 전단지나 인터넷 검색으로 업소를 찾던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정렬되는 근처 업소들을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음식 카테고리 별로 업소 리스트가 정렬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 한식, 중식과 같은 큰 영역에서부터 야식, 분식, 치킨, 족발, 피자 등 상세 카테고리까지, 그것도 자신의 동네에 있는 업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평가한 업소 리뷰를 참고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또 전화 주문뿐 아니라 현금이 없어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바로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대표적인 앱이 최근 지상파 광고에서도 인기를 올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다.

배우 류승룡이 바닥에 누워 말을 타는 모습을 담은 CF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 앱은 하루 10만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13만여개의 배달 업소가 등록돼 있고 매일 150여개의 업소가 추가되고 있다.

누적된 업소 리뷰 수는 220만개이며 매일 약 4000개의 리뷰가 새롭게 올라오고 있다.

이 외에 요기요, '배달통' 등이 배달의 민족과 경쟁하는 중이다.

이 가운데 배달통은 최근 판자잣수 수수료를 전면에 눈길을 끌고 있다. /서보훈기자 cer@

market index (19일)

코스피	코스닥
2004.28 (+12.23)	571.23 (+5.48)

금리	환율
2.88 (+0.01)	1038.30 (-0.70)

뉴스&뉴스

SK공채, 한국사 추가

● SK그룹은 상반기 신입사원 및 인턴 공채부터 SKCT(SK Competency Test) 인적성검사 필기시험에 한국사 영역을 추가하고 문항의 심층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공채부터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SKCT 인적성검사는 인지역량, 실행역량, 직무수행, 심층역량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 상반기부터는 한국사 영역이 새롭게 추가된다.

SK 관계자는 "지원자가 한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필기시험에 역사영역을 추가했다"며 "올해 상반기 필기시험에 역사 문제가 10문항 출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kimyr@

김종준, "남은 임기 끝까지"

●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던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남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20일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마치기로 했다"며 "어려운 금융환경에서 CEO의 경영 공백은 조직의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내부의 위기 의식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투자심사를 소홀히 해 60억원의 피해를 낸 것과 관련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 행장의 경우,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돼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행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미란기자 mlee0203@

로또복권 제595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9	13	15	28	37	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255,592,196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54,117,523
3등	5개 숫자 일치	1,315,315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542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 겸 편집인	남규호
사장 편집인	김용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71

2010년 6월 3일 정간물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 00489

홈플러스 완구 할인판매 홈플러스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7일까지 전국 131개 점포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인기 어린이 완구를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코스피 2000선…기관 뭘 샀나

삼성전자·현대기아차 팔고 중소형주 사들여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에 기관이 가세해야 겨우 2000선을 넘는 형국이다. 코스피가 2000선에서 더 오르는 데 기관의 '팔자'가 번번이 걸림돌이 되면서 기관의 매매 종목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바로 다음날부터 최근 한 달간 기관이 매매한 종목을 살펴보니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형주를 대거 매도하고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을 선별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올해 처음 2000선을 돌파한 지난 10일 (2008.61) 외국인은 3월 26일 이래 12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로 2조 90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기관은 바로 다음날인 27일부터 8일째 1조1000억원어치 팔아치우고 서 이달 8~9일 400억원 순매수로 돌아섰다.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선 10일 당일엔 매도 우위로 돌아섰지만 바로 직전 이틀간 '사자'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

지난 18일 코스피가 2004.28로 올들어 두 번째 2000선 고지를 돌파할 때는 외국인이 나흘째 4000억원 넘게 사들였고, 기관은 7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 16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가 두 차례 2000선을 뚫을 동안 기관이 가장 많은 액수를 순매도한 종목은 기아차(-3240억원), 삼성전자(-2370억원), 현대차(-1780억원), 한국전력(-1210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기관은 이 기간 네이버(2140억원), LG디스플레이(1220억원), SK하이닉스(945억원), 기업은행(910억원), 삼성증권(670억원) 등을 사들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은 대유 윈텍(-270억원), 서울반도체(-260억원), KH바텍(-250억원), 성우하이텍(-130억원), 파라다이스(-110억원) 등을 팔아치우고 CJ E&M(770억원), CJ오쇼핑(440억원), GS홈쇼핑(310억원), 성광벤드(200억원), 파트론(150억원), 인터파크(140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특히 최근 기관들이 코스닥 바이오주를 대거 사들였다.

기관은 이 기간 차바이오앤(109억원), 셀트리온(62억원), 메디톡스(48억원), 오스템임플란트(46억원), 엑세스바이오(43억원), 메디포스트(39억원), 젬백스(31억원) 등을 사들였다.

기관 자금 유입에 주가가 치솟은 종목도 나왔다. 차바이오앤은 일주일새(9일~17일) 주가가 20% 넘게 치솟았다.

다만 차바이오앤은 17일 해외의 권위있는 학술지에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성공 소식을 밝히고 나서 18일 주가가 다시 4% 넘게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기관 역시 이날 순매도 전환하면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사전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관이 2000선 부근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내는 관성을 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은 "고질적인 국내주식펀드 환매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최근 3년간 국내 증시가 2000선 박스권에서 여러 차례 움직여왔으므로 앞으로는 환매 집중 구간이 2000선에서 2050선 부근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명찬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관은 당분간 차익 실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생겼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 유망주에 몰리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김현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도 많다. 그러나 실제 법률 상담 현장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 지, 제대로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빚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제대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주 2회 개인회생과 파산에 얽힌 이야기를 싣는다.

60대 중반의 L씨는 3년전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그는 파산과 관련해 법원에 나갔지만 판사로부터 무안을 당했다. "신청인은 소득이 있어서 파산은 안 됩니다. 취하하세요."

중간사 일을 하며 200여만원을 버는 L씨는 많은 빚을 떠안고 살았다. 그의 딱한 처지를 도와주기 위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이 대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준 것이다. 이 지인은 이웃을 도우려는 선의에서 나섰지만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고 법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L씨는 파산대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었다.

최근 개인 회생 신청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반면 아이러니칼하게도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인가율은 2009년 74%였지만 2012년 59.7%로 줄어들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신청자들이 늘어난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법률지식 없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쉽게 생각한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은 웬만한 전화상담은 무료로 해주고 있어 자신이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문제인 것이다.

http://blog.daum.net/law2108/

금감원, 해외투자 안내문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내문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투자시 단계별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법규위반시 자진신고 방법 제재 내용 ▲해외 직접 투자정보 제공기관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영업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비치하고, 금감원·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신고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과 관련 법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양식을 개정했다.

이밖에 외국환은행 직원이 내부 교육은 물론 금융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환거래가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김민중기자 minjie

은퇴설계, 비재무부문도 고려해야

금융가 사람들

■우재룡 서울은퇴자 협동조합 이사장

"돈만 많으면 뭘 하나요.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 등 자산운용 분야에서 재무설계를 하고,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으로 30여년간 수많은 은퇴자들 상담한 우재룡 서울은퇴자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의 첫 마디였다.

은퇴전문가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듣겠거니 생각했던 인터뷰에서 '행복'이 튀어나온 것이다.

18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우 이사장은 "은퇴설계의 목표는 돈이 많은 노후가 아니라 '행복한 노후'가 돼야한다"며 "생활비, 의료비, 상속계획과 같은 재무적인 문제를 넘어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생애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퇴 이후 몇 억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형 은퇴설계는 어디서 살고, 누구와 어울려 살며, 무엇을 할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할 경우에도 혼자서 모든 위험을 지기보다 협동조합 등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려하고 막연한 창업보다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살린 창직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 이사장은 "실제 은행 지점장 출신의 60대 한 조합원의 경우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며 "진지한 취미여가를 통해 스스로 자신감도 얻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생애설계에는 재무적인 부분도 빠질 수는 없다. 우 이사장은 "행복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빼놓고 생각할 수도 없다"며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무설계와 소액의 분산투자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들게 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을 기본으로 챙겨야 한다"며 "특히 자신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을 할 때에는 저축 등 예금 위주보다 주식 등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이 권고됐다.

우 이사장은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저축만 하는 것은 안전한 동시에 안전하게 가난해지는 길"이라며 "자신의 월급에서 최소 20~30%는 저축 하되 주식 투자 등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 성향을 낮추고 소액은 아껴 투자해야한다"며 "외국에서는 이런 투자법을 '카페라떼 효과'라고 하는데 한잔에 4000원이 훌쩍 넘는 카페라테를 하루에 한 잔씩 아껴 투자하면 30년 후 얼마가 될 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배아현기자 afsin0203@

현금 쌓아놓는 10대 재벌

유보율 사상최고… 롯데 6개 상장사 444조로 전년비 11.3%↑

국내 10대 재벌그룹의 현금 유보율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율(잉여금/자본금)은 기업이 번 돈 가운데 벌어들인 금액에서 지출된 비용을 뺀 순이익 가운데 일정액을 적립해 놓은 비율을 뜻한다. 한마디로 10대 그룹이 벌어들인 만큼 투자 및 고용 등에 비용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재벌그룹 70개사의 2013년 유보율은 1578.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414.2%보다 164.3%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70개사의 잉여금 총액은 444조2000억원으로 전년 399조2000억원보다 11.3% 늘었지만 자본금은 28조1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그룹별로 롯데의 유보율이 5767%로 가장 높았다. 롯데그룹 소속 6개 상장사의 잉여금 총액은 27조원으로 자본금 5000억원의 58배에 육박했다. 이어 포스코(3937%)-삼성(3321%)-현대중공업(3092%)-현대차(1661%)-SK(984%)-GS(894%)-LG(570%)-한화(479%)-한진(189%) 등 순이다.

소속 상장사의 유보율 평균치도 롯데(1만2724%)가 가장 높았고 이어 SK(6990%), 현대차(2633%), 포스코(2446%), 삼성(2446%), 현대중공업(214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잉여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삼성(17조원)과 현대차(15조원)였다. 반면 전년대비 유보율 증감률은 롯데(425.2%포인트), 삼성(369.8%포인트), 현대차(298.0%포인트), GS(234.4%포인트), 현대중공업(233.0%포인트) 순이었다.

유보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태광산업으로 3만9971%였고, SK텔레콤도 3만490%로 3만%대에 들었다. 4대 롯데칠성, 롯데제과, 삼성화재는 유보율이 2만%대였고, 남양유업, 영풍, SK C&C, 삼성전자, 엔씨소프트, 롯데푸드, 현대글로비스, 아세아 등도 유보율이 1만%를 넘었다.

/김대곤기자 kdg@metroseoul.co.kr

한화그룹이 현장경영에 나섰다. 사진은 한화케미칼 방한홍 사장이 지난 3월 여수공장을 방문해 현장점검 및 현장근무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들으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 /한화 제공

한화, "현장이 답"… 일선경영 시동

한화그룹이 현장경영에 나섰다. 20일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에 따르면 그룹내 계열사 CEO들이 현장을 찾아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는 국내 외 기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사업현장에 최우선 가치를 둔 전사차원의 현장중심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특히 지난 3월 임원 인사에서 현장과 성과중심의 중요성을 밝히고, 현장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임직원을 중용한 바 있다.

이금암 경영기획실장은 지난 4월 1~3일 한화L&C 음성 사업장, 한화케미칼 바이오부문 오송공장, 대전 한화 화약종합연구소, 한화생명 둔산지역단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한화케미칼 방한홍 사장은 올들어 여수·울산공장, 대전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등을 방문해 시업점검에 나섰다. 한화L&C 김창범 사장은 주1회 이상 지방사업장을 방문해 현장근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한화 화약부문 심경섭 사장은 지난 2~3월 구미·보은·온산 등 공장을 찾아 지방현장에서 업무보고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도 지난 3월 대구·부산·울산지역의 영업현장에서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현장을 챙겼고, 한화손해보험 박윤식 사장은 지난 2~3월 서울지역본부·일산지역단·부산지역본부·경남지역단 등을 방문했다.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사장도 '주톡'을 통해 현장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주톡은 지난해 9월부터 매주 금요일 반시간 동안 대표와 직원들이 면대면으로 회사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피드백과 경영진의 대답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여 가고 있다. 지금까지 600여명을 만나 전 직원의 절반 정도를 직접 대면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홍원기 부회장은 더플라자(호텔) 및 전국 한화리조트 콘도 사업장 등을 수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지난 4월 개장한 일산 아쿠아플라넷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했다.

한화건설 이근포 사장은 국내 건축 및 주택건설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4월에는 동탄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현장안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정희영기자

기아차, 베이징모터쇼서 K3S 공개 기아자동차는 20일 중국 베이징 신국제전람중심에서 개막한 '2014 베이징모터쇼'에서 신차 K3S를 공개했다. /기아차 제공

저커버그, 칭기즈칸 '속도경영' 배워

페이스북, 친구찾기·독립 앱 도입… 혁신 지속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칭기즈칸의 전략'을 새로운 신무기로 꺼내들었다.

친구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새로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능별 독립 애플리케이션 제도를 도입해 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의 인수로 자칫 비대한 '공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고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친구들 사이에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인 '니어바이 프렌즈'를 수주일 안에 미국에서 먼저 개시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GPS(위치추적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은 사람들끼리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주적해 자동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니어바이 프렌즈'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이고 누구인지, 위치는 어디쯤인지 등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영화관에서 '니어바이 프렌즈'로 친구를 발견하고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독립 앱" 전략을 공개했다. 페이스북을 여러 개의 다른 기능을 가진 앱으로 쪼개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조차 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스마트폰의 작은 스크린과 터치상의 어려움 때문에 앱 하나가 다양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면 기존 페이스북 앱보다 문자를 20%나 더 빠른 속도로 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IT업계는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IT업계 한 관계자는 "몽골의 칭기즈칸이 규모보다는 속도의 경쟁을 통해 전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페이스북의 이번 변화는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규범기자 kmlee88

통일한국 경제규모 세계 7위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50년 세계 7위 경제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북한의 장기적인 고성장 및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동북아 동남아의 한민족 경제권 형성,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 등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통일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보고서에서 "2050년 통일 한국은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9만2000 달러, 실질 GDP가 6조9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중국·미국·인도·브라질·일본·러시아에 이은 세계 7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반도 단일 경제권 효과는 물론 ▲북한과 중국·러시아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한민족 경제권 형성 ▲유라시아 지역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연결 등으로 통일의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을 가정하고 기대효과를 추산했다.

한국과 북한은 2050년에 각각 실질 GDP가 5조7000억달러와 1조3000억달러, 1인당 GDP는 11만3000달러와 4만800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서승희기자 ssh8848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에 출품된 혼다 모터사이클

혼다 'P&I'전시회서 신제품

혼다코리아(대표이사 정우영)가 슈퍼 스포츠 모터사이클 'CBR1000RR'과 프리미엄 스타일리시 투어러 '골드윙 F6B' 등을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전시관에 20일까지 나흘간 전시했다.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은 사진영상기술과 전문 사진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국제사진영상전시회다. 올해 23회째를 맞이했다. 코엑스,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KOPHIA), 한국사진영상기자재협회(KOPI)가 주최하며, 파나소닉을 포함한 141개 업체의 300여 개 브랜드가 참가한 가운데 참관객 약 9만 명이 방문했다.

혼다 CBR1000RR 모델은 행사기간 동안 파나소닉 전시관 내 스튜디오 존에서 전시됐고, 골드윙 F6B는 벤로코리아 전시관에서 전시됐다. 벤로코리아는 카메라 삼각대 및 헤드 전문 생산 업체다.

혼다코리아 정우영 사장은 "이번 전시 협찬을 통해 파나소닉 및 벤로코리아의 혁신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혼다 모터사이클만의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감성이 어우러져 참관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BR1000RR은 출시 23주년을 맞이한 모델로, 10번의 진화를 거듭한 슈퍼 스포츠 모터사이클이다. /임의택기자

금호타이어 챔피언십 참가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오는 20일 강원도 태백레이싱파크에서 개막하는 '2014 CJ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참가한다.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경주인 '2014 CJ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총 8라운드의 경기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금호타이어가 창단한 엑스타(ECSTA) 레이싱팀이 첫 출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엑스타 레이싱팀은 슈퍼레이스 최상위이자 예연 클래스로 인기가 높은 슈퍼6000 클래스에 참가한다. 슈퍼6000 클래스는 배기량 6200cc, 8기통 엔진을 장착한 스톡카 경주로 이 차량들은 470마력의 파워와 함께 직선 구간에서 최고시속 300km를 넘나들어 '괴물차'로 불린다. /임의택기자

<국산차 소형SUV, 인기 일본차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기아	스포티지R	-	1,640	2,010	2,150	2,490
현대	투싼ix	1,530	1,570	2,020	2,030	2,150
삼성	QM5	1,400	1,600	1,510	1,850	2,750
쌍용	코란도C	-	-	1,760	1,810	1,910
토요타	프리우스	-	1,020	2,140	2,420	2,520
	캠리	1,850	1,710	1,830	2,320	2,600
렉서스	IS250	2,170	2,500	2,750	4,630	4,090
인피니티	G25	1,870	2,250	2,450	2,620	3,130
닛산	큐브	-	-	1,550	1,610	1,630
	무라노	1,810	2,100	2,280	3,040	-
혼다	CR-V	2,030	2,160	2,260	-	-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앞모습 바꾸고 분위기 '쇄신'

임의택의 차 차 차

■기아 K9 3.8

동력 성능 차이없어 옵션 선택폭 넓혀야

▲한 줄 평가: 호화로운 옵션이 최고급형에 집중돼 있다. S클래스나 7시리즈와 맞서기에는 부족하다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최고급 세단에 요구되는 사항들은 다른 차들보다 매우 까다롭다. 그 업체가 가진 기술력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에 경쟁차와 차별화되는 무엇인가가 뚜렷이 드러나야 하는 점이 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K9이 여기에 해당하는 차다. 최근 선보인 2014년형 K9이 이런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며칠간 시승해보며 짚어봤다.

2014년형 K9은 기존 모델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소한 변화를 줬다. 우선 '짝퉁 BMW'라는 말을 들었던 라디에이터 그릴을 바꿨다. 프랑이 코 모양은 넓겨졌으나 테두리를 직선형으로 바꾸면서 인상이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BMW의 그림자는 덜어냈으나 격자형 라디에이터 그릴 때문에 에스턴마틴을 연상케 한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애스턴나인(애스턴마틴+K9)'이라는 새로운 별칭을 지어내기도 했다.

실내 역시 외관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에 없던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되는 정도에 그쳤다.

동력성능은 그대로다. 시승차인 3.8 모델은 최고출력 334마력 엔진을 얹고 40.3kg.m의 최대토크를 낸다. 출력은 부족하지 않지만 급가속 때의 반응은 약간 늦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다른 모델들이 그렇듯이,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rpm(엔진 회전수)이 치솟고 나서 한 박자 늦게 속도가 올라간다.

서스펜션의 세팅은 운전자를 위한 것인지, 뒷좌석 승객을 위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모자라고, 뒷좌석 승객에게는 안락함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인데, 이 장비는 3.3 모델에는 아예 없고 3.8 모델에서도 두 번째로 비싼 VIP 모델(6830만원)부터 장착된다.

기아차는 K9을 2012년에 처음 선보이면서 다양한 옵션 패키지를 마련했는데, 종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인지 2014년형에는 옵션 리스트가 상당히 간소화됐고, 몇몇 품목은 기본화됐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점은 남아 있다. 기아차가 K9에서 자랑거리로 내세웠던 12.3인치 TFT LCD 클러스터의 경우, 가장 비싼 RVIP 모델(7830만원)에만 장착되고 그 외의 모델에서는 선택조차 불가능하다. 이렇게 최고급형에만 장착되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더 있다.

최고급 세단에는 다른 차에 없는 그 브랜드만의 독특한 철학이 담겨져야 하고, 이를 사용자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아 K9에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고급스러운 옵션을 모아놓고 비싼 가격표를 달았다고 최고급차가 될 수 없음을 K9은 보여주고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한타, 미래형 타이어로 기술력 뽐내

'오토차이나베이징' 참가

한국타이어(대표 서승화)가 20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2014 오토차이나 베이징'에 참가해 세계 최대 규모 타이어 시장인 중국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질주를 가속화한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2014 오토차이나 베이징에서 미래형 비공기입 타이어인 '한국 아이플렉스(Hankook iFlex)'를 공개하며 미래 타이어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아이플렉스는 연료소비와 소음발생을 최소화한 콘셉트 타이어로 95%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다.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져 일반 타이어보다 가볍고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색상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색으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는 메르세데스 벤츠 뉴 S클래스와 BMW 5시리즈에 신차용 타이어(OE, Original Equipment)로 공급하는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프라임2와 벤투스 S1 에보2를 전시한다. 이를 통해 독일 3대 명차와 일본 3대 자동차의 북미 베스트 셀링 모델에 대규모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의 명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기술력과 품질 위상을 다질 계획이다.

한국타이어 베이징 모터쇼 부스 모습

/임의택기자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 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 1555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 6422
www.primephil.net

shin young ok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니…"

뉴스룸에서
정 영 일
<생활경제부 차장>

"이게 진정 대한민국 현실입니까"

지난 18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발표한 호소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당시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반신반의하기도 했다. "300여 명 가까운 승객이 실종된 대형 사고에 구조대원이 고작 8명뿐이겠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5일을 넘기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주장이 사실로 여겨지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외국 언론에 비친 우리나라의 재난대처 모습은 후진국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비춰져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정부에 대한 믿음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의 구조·수색 작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였다. 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재융 중공조종관, 각 부처의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에서 파견한 연락관 등 40여명이 머리를 맞댔지만 누구 하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대본의 실수는 사고 첫날부터 이어졌다. 사고발생 당일인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중대본은 총 471명의 승객이 세월호에 탑승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하루에 3번 점검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등 총 5번이나 오락가락했다.

구조인원발표에서도 실수는 이어졌다. 최초 16일 오후 2시쯤 368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8차례나 바꾸고 나서야 18일 174명으로 최종 변경했다. 애초 발표했던 368명과는 194명이나 차이가 났다.

결국 재난 관리를 총괄하고 조정해야 하는 중대본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사망자의 이름이 뒤바뀌는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실수가 이어지자 정부는 다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가동시키는 촌극마저 연출했다.

실수는 연발에 사실 호도의 사고로 확대한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실종자 가족들과 약속한대로 (담당자들은)전부 옷을 벗는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노조, 자율개혁 용단이 필요하다

정론탁설
유 병 팔
<언론인>

박근혜정부 가 추진하는 개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개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1월 14일"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온 지 5개월이 지났으나 커다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핵심개혁 대상 공기업 38곳 가운데 불과 6곳만 합의를 보았고 21곳은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16곳은 노조에서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봉과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의 시한을 넘긴 곳도 적지 않다.

일부 노조에서는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에 협상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개별노조가 나설 경우 정부나 사측에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들은 공공기관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같은 곳은 아예 거래소는 원래 민간 기관이었다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을 풀어준다는 약속을 해야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기업노조는 개혁에 실패할 경우 기관장이 해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물론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그랜드 코리아 레저, 부산항만공사, 한국투자공사, 마사회, 가스기술공사 등 6곳은 노사합의를 보아 경영개선의 길을 찾고 있기는 하다. 사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어 오면서 지금처럼 부실을 키웠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부채를 늘리는데 에는 공기업의 부실경영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기업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그동안 경쟁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연봉과 복리후생비는 물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상식을 벗어난 사례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제 공기업노조는 국민통합차원에서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자율개혁을 선언하고 화답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타율식 개혁 이전에 더불어 사는 모범을 회복해야 마땅하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나 저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빈곤층을 한번 쯤 마음으로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포토프리즘

사진영상 기자재 총집합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서울국제사진영상 기자재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와 관련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에 관심이 많은 전문 사진 동호인들 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도 관심을 가지고 장비들을 둘러보는 모습이 흥미롭다.
/손진영기자 son@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금융권

기자수첩
박 아 란
<경제산업부 기자>

"신뢰를 잃은 금융회사와 경영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5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에 주요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한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 같이 경고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6일 농협생명에서 고객정보 35만건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유출된 사실이 발견됐고 이틀 후 신한은행 직원들이 가족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초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3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1억 건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하고 재발 방지란 명목으로 갖가지 대책 방안을 내놓았지만 약발은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 역시 금융회사의 사이버 안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IT검사를 실시했고 검사항목에서 해킹 방지대책 등 주요 보안 기준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주요 검사대상 금융회사 가운데 46개사는 IT 실태평가 실적이 전무했고 26개사에 대해서는 IT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장이 외친 '신뢰'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대책만 내놓고 정작 외양간은 고치지 않았던 금융권은 허공에 메아리만 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더 돌아봐야 한다.

사라진 정부, 통곡하는 국민

인문학 산책
김 만 용
<성공회대 교수>

"이마에 진땀이 나고, 곁눈질로 보기는 하나 차마 바로 보지는 못하였다." <맹자>에 나오는 대목이다. 골짜기에 버려진 누군가의 주검이 당하는 비참한 모습 앞에서 마음이 같은 통증을 앓고 있는 심리에 대한 증언이다. 그는 이런 상정이 성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토로한다. 생명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공감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폭력과 반복되는 희생이다.

예수는 어떤 아이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서로 논박에만 몰두하자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일갈한다. 어떻게든 먼저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의지나 능력은 없으면서, 딴 짓이나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상에 대한 예수의 슬픔이 또한 여기에 배어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난의 바다 고해(苦海)에 잠긴 중생의 아픔에 공명한 부처의 가르침도, "자비(慈悲)"라는 말로 연결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끈을 놓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뜻이다. "자(慈)"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비(悲)"는 누군가 아파하는 것을 자기의 고통처럼 눈물 흘리는 마음이다. 맹자나 예수 그리고 부처의 말씀 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가르침의 핵심은 "생명의 존귀함을 지켜내는 마음"이다.

근대국가의 사회계약론에 관한 정치철학적 기초를 만들어낸 홉스와 <리바이던>은 자연 상태에서의 폭력을 막고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한 합의를 주목한다. 이걸 근거로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지만, 홉스가 말한 중심에는 그 구성원의 생명을 지켜낼 수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역설적 논리가 서 있는 것이다.

잔도 앓바다. 침몰참사의 실종학생 부모 가운데 누군가가 현장을 찾아온 단상 위의 대통령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다. 그때 대통령은 황급히 단 아래로 내려와 그 부모를 껴안고 울며 이윽고 상대를 부축해 함께 일어섰다. 엄마와 아빠를 모두 잃어버린 다섯 살짜리 소녀를 만난 대통령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품에 꼭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한참이나 통곡했다. 현장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둘 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무릎 꿇고 하소연 했던 엄마와 부모가 실종된 아이는 현실이었지만. 그야말로, "생명의 정치"가 절실해진다.

'무료 줄기세포 치료 캠페인' 퇴행성관절염 환자 희망 전달

엄홍길 휴먼재단,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 위한 '무료 줄기세포 치료 캠페인' 전개 -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로 연골 재생시켜 관절 보존 가능

관절이 건강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절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무릎의 노화다. 무릎은 평생 체중을 떠받치면서 걷기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사용이 많은 신체부위 중 하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무릎은 다치거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무릎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퇴행성관절염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 돕기 나선 산악인 엄홍길 대장.

◆손상된 무릎 연골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치료'

퇴행성관절염은 무릎 내 쿠션인 연골이 노화 또는 외부의 충격으로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맞닿아 통증이 발생되는 질환이다.

보통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며 이유 없이 무릎 통증이 발생한 경우, 혹은 붓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퇴행성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퇴행성관절염은 연골이 손상된 정도에 따라 초~중·말기로 나뉜다.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퇴행성관절염 말기라면 인공관절을 넣어주는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연골 손상이 적은 퇴행성관절염 초~중기라면 줄기세포 연골재생술 을 통해 관절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

줄기세포 연골재생술은 무릎관절 병변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연골세포로의 분화·재생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환자의 골수나 지방, 타인의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로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관절내시경을 통해 무릎 연골 결손 부위에 직접 줄기세포를 주입하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에 치료 미루는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 대다수

이런 이유로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고민하는 고령의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가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는 최근에 도입된 치료법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퇴행성관절염 특성 상 양쪽 다리에 모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비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무릎 통증을 느끼고 있지만 치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엄홍길휴먼재단,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 위한 '무료 줄기세포 치료 후원 캠페인' 전개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위한 '무료 줄기세포 치료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엄홍길 휴먼재단은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씨가 설립한 재단으로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및 의료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이번 캠페인 대상자는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 및 차상위계층)이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줄기세포 치료 기술이 그 효과를 인정받지만 치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저소득층 환자가 치료를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황재용 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 02-2272-6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캠페인 담당자)

인터넷 신청: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우측 후원 캠페인 배너를 통해 신청

야외활동, 어린이 피부 먼저 챙겨야

긴 소매 옷, 마스크 등 착용 필수 - 피부 노출 줄이도록

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났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밖으로 나섰다가는 연약한 어린이들의 피부가 손상될 위험이 크다. 특히 봄철에는 미세먼지·꽃가루·자외선 등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 야외활동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토피 있으면 피부 긁지 말아야

건강한 성인이라도 봄철 미세먼지나 꽃가루에 피부가 노출되면 자극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피부는 성인에 비해 훨씬 연약하므로 봄철 유해 환경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나들이를 위해 외출해야 한다면 긴 소매 옷, 마스크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또 외출 후에는 되도록 바로 샤워를 해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것이 좋다. 세안제나 샤워용 세정제는 거품을 충분히 낸 뒤 사용하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한다. 샤워 후 보습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어린이들은 평소에도 피부가 건조해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아이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가려움이 심해져 발진이나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가려워도 피부를 긁지 말아야 하며 보습제를 사용해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 줘야 한다. 목 주변, 팔·다리 등 피부가 접히는 부분에는 아토피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면 소재 옷을 입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외출 전 자외선차단제 사용은 필수

자외선 지수가 상승하는 봄철에는 자외선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야 한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기저층(표피의 시작부위)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색소 형성세포)가 자극을 받아 멜라닌을 만들어 낸다. 멜라닌 색소가 검게 돼 피부 표면을 덮는 것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9세 이전에는 멜라닌 색소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피부가 자외선에 쉽게 손상된다. 즉 어른보다 쉽게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20~30, PA++ 정도가 적당하다. 또 차단 지수가 지나치게 높으면 연약한 아이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김산 웰스피부과 원장은 "아이들의 피부는 성인에 비해 연약하므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고 외출 후에는 피부 청결과 보습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잘못된 걷기 운동, 건강에는 치명타!

올바른 신발 선택과 걷는 방법 등 제대로 숙지해야

허리디스크에 걷기 운동이 최고라는 것은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무리한 걷기 운동은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허리디스크에는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걷기 운동이 좋지만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기 운동을 했다가는 허리디스크가 파열될 수도 있고 발바닥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잘못된 걷기 습관은 발목이나 무릎관절에 무리를 줘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과 같은 근골격계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 있는 신발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뒤쪽 바깥 면이 가장 많이 닳아 있고 뒤쪽에서 안쪽 앞면까지 골고루 닳아 있으면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발의 엄지발가락과 앞 볼의 바닥 부위만 많이 닳았다면 걷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을 했을 때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거나 두 발의 각도가 벌어져 있다면 자신의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른 걷기 자세는 시선을 20미터 정도 앞에 두고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것이다. 복숭아뼈와 골반,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서고 무릎은 정면을 향해야 하며 체중은 뒤꿈치에서 바깥 면, 앞꿈치를 거쳐 엄지발가락 순서로 자연스럽게 옮겨야 한다. 팔은 힘차게 앞으로 뻗어주고 약간 땀이 흐를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서소진 본튼튼병원 원장은 "양팔과 다리가 서로 스치듯이 걸어가는 것처럼 팔도 몸통을 스치듯이 정확히 앞뒤로 흔들어줘야 한다. 또 초보자의 경우 약 20분 정도 걷는 것이 좋고 평소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왔다면 30분 안팎이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 기자

특별한 봄나들이 추천 '러쉬 냄새나는 콘서트3'

내달 10일 공연 개최 성시경 등 6팀 참여

영국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오는 5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러쉬 냄새나는 콘서트3'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화려한 라인업의 여섯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발라드 왕자 '성시경', 지난해 MTV 유럽 어워드를 수상한 수려한 외모와 실력파 뮤지션 '바스티앙 베이커', 힙합 밴드 '리쌍', 한국 인디록 신의 중심 '장기하와 얼굴들', 폭발적인 가창력의 걸그룹 '씨스타', 혼성 록밴드 '자우림'이 러쉬 냄새나는 콘서트3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올해 콘서트의 테마는 '글라스 룸 오브 러쉬'다. 농부들의 정직한 땀과 정성이 모여 고급스러운 한 잔의 와인이 탄생하는 것처럼,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러쉬 팜(Lush Farm)에서 진정한 위로와 빛나는 가치의 러쉬를 한 잔 가득 담아 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콘서트장 밖에 마련될 러쉬 팜에서는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디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신선하고 건강한 러쉬를 체험할 수 있다. 당일 오후 12시부터 시작된다.

러쉬는 전국 49개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콘서트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6만원~7만5000원 제품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좌석 등급(R석 스탠딩, R석, A석) 선택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러쉬 홈페이지(www.lush.co.kr)참조. 문의 1644-2357

/정혜인기자

러쉬 팜 이외 체험 프로그램

- ◆러쉬 피더스 마켓 – 신선한 러쉬로 장보러 오세요!
- ◆핸드메이드 키친 오늘은 내가 러쉬 키친 셰프!
- ◆스킨 케어 카운슬링 자연으로부터 얻은 신선한 아름다움!
- ◆러쉬 캠페인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로 세상을 바꿔요!
- ◆러쉬 팝업 스토어 건강하고 신선한 러쉬 베스트 50선!
- ◆러쉬 스파 –영국 전원의 정감 넘치는 진짜 가득!

봄철 탈모, 두피 건강 사수하라

청결과 유·수분 밸런스 중요

요즘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탈모의 원인은 유전이나 임신 및 출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스트레스와 계절적인 이유가 크다.

특히 봄철에는 급격히 건조해진 날씨와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등으로 인해 오공이 막히고 두피의 기능이 저하된다. 두피의 기능이 저하되면 모발의 성장이 더뎌지고 영양 부족으로 인해 모발의 힘을 잃기 마련이다. 두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탈모 증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거나 호전되므로 청결과 유·수분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를 감기 전에는 둥근 브러시를 이용해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빗질을 하면 두피의 죽은 각질을 제거하고 두피 긴장을 풀어줘 모낭에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도와준다. 머리를 감을 때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두피를 마사지하듯 샴푸해주는 것이 좋다. 뜨거운 물로 오랜 시간 샴푸를 한다면 강한 자극으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적당 온도를 지키도록 한다.

두피가 약해지거나 민감해 독소와 노폐물들이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연 성분의 샴푸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 아로마티카의 '로즈마리 씨크닝 샴푸'는 설페이트와 실리콘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샴푸로 허브추출물과 에센셜 오일 성분이 두피와 모근을 건강하게 가꿔준다. 그라펜스의 '내추럴 샴푸'는 호주 유기농 허브와 마누카 꿀이 함유돼 두피 트러블 완화와 수분 공급에 효과적이다.

오랜 시간 유해 환경에 노출된 두피는 기능이 저하되어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십상이다. 이럴 때는 샴푸 후 깨끗한 두피에 헤어 토닉 제품을 도포해 가볍게 마사지해 사용하면 미세혈관 순환을 자극해 모발유실 방지를 도와줄 수 있다. 에디비타의 '트레따멘또 안띠 시보 토닉'은 자연 농축 성분의 로션 콘센트리(Lotion Concentre)라는 특허물로 두피순환 및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

샴푸 후 두피와 모발을 완전히 말리지 않은 채로 잠자리에 들거나 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을 바로 쐬는 것은 두피 건강을 해친다. 드라이 할 때에 두피에서 모발 끝부분의 순서대로 머리를 말리고 두피 부분은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야 한다.

/유혜선 기자 hjyoo1404@metroseoul.co.kr

골라먹는 반값 즉석밥 출시 롯데마트가 상일 유명 브랜드 상품의 반값 수준인 브랜드 쌀 즉석밥을 선보였다. 이 즉석밥은 현재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쌀과 동일한 상품 포장을 하고 있어 햅쌀 고르듯 품종 및 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롯데마트 제공

유산균 브랜드, 마케팅 경쟁 '점입가경'

TV-CF, 체험단 등 다양한 마케팅 눈길

국내 유산균 제품들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홍삼이나 비타민의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제품은 약 27%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지난 해 말부터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며 "최근까지 인기를 끌었던 홍삼과 오메가3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CJ제일제당은 '떠먹는 생유산균 CJLP133' 체험단을 통한 효능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1차적으로 시내 체험단을 통해 아토피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로 체험단을 확대했다. 얼마 전에는 쿠킹클래스를 통해 아토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제품 활용 레시피를 제안하기도 했다.

일동제약의 '비오비타'는 5년 만에 새로운 TV 광고를 공개하면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휘재와 쌍둥이들을 주인공으로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베베락은 기존 유산균 제품에 이어 기능을 세분화한 영·유아용 제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유산균에 비타민D를 강화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 쎈'과 혈액생성에 필요한 철분을 첨가한 '프로바이오 에프' 등이다. 또 면역 기능을 강화한 '프로바이오 베베'와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 패밀리'까지 총 4종으로 라인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야쿠르트 역시 '세븐 키즈'와 '세븐 시크릿'을 내놓으며 제품군을 다양화했다. 김우빈 등 에너제틱으로 연예인을 등장시키는 TV 광고도 시작됐다.

/정예림 기자 yerim@

야외 커플룩, 판박이 대신 '시밀러 룩'

티셔츠는 프린트·레터링 가미, 컬러는 다르게

똑같은 판박이 옷을 커플 룩으로 입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소재 컬러 패턴 등의 디테일만 맞추는 시밀러 룩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봄맞이 나들이 길, 연인과 센스 있는 시밀러 룩을 연출하면 자연 경관과 함께 주변의 시선까지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똑같은 스타일링으로 촌스러움을 티내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스타일링과 멋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시밀러 룩은 어떤 아이템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패턴이 없는 깔끔한 티셔츠는 프린트나 레터링을 가미하고 컬러는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세련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팬츠로 포인트를 준다면 같은 컬러에 길이를 다르게 하는 것이 각자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데 남자는 무릎 위를 살짝 올라오는 길이의 쇼트 팬츠로, 여자라면 핫 팬츠로 실루엣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봄철 아우터로 베스트나 재킷 등 디자인이 다른 아우터를 선택하는 대신에 가죽 디테일이 가미된 시밀러 룩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비이커스 마케팅실 관계자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걸칠 수 있는 아우터가 필수다"라며 "셔츠는 레이어드에 필요한 아이템으로 낮엔 허리에 두르거나 어깨에 걸치고 추울 때에는 오픈해 아너 뒤에 입는다면 유니크한 룩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kimoj@

코레일관광개발, 일본 온천 효도여행 출시

코레일관광개발(대표 이건태)은 박현빈 콘서트와 천연온천을 즐길 수 있는 어버이날 효도상품인 '야마구치 온천여행'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5월 7일과 8일 출발해 3박 4일 일정으로 온천을 포함한 일본 대표 관광지가 코스로 준비돼 있다.

첫째 날 부산국제터미널에서 부관페리로 출발하는데 면세점과 대욕장, 노래방 등의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둘째 날 오전에 시모노세키항에 도착 후 본격적인 야마구치 여행을 시작으로 셋째 날에는 일본 최대의 카르스트 지대인 아키요시다이와 종유 동굴인 아키요시동굴에서 독특한 자연경관을 즐기게 된다.

나가토시내에 위치한 공연장에서 박현빈의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여행을 마무리한다. /김하실 기자

굽네몰 로드FC 서두원 모델로

굽네치킨에서 만든 닭가슴살 온라인 쇼핑몰 '굽네몰(www.goobnemall.com)'은 로드FC 대표선수로 잘 알려진 서두원 선수를 모델로 발탁해 스타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굽네몰의 홍경호 대표는 "굽네몰 닭가슴살은 운동 후 섭취하기에 최적화된 제품이라 프로선수인 서두원 선수를 모델로 기용한 것"이라며 "서두원 선수를 모델로 내세워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헌 류현진 박인영

'말보다 행동' ★ 온정 눈물 닦다

세월호 참사 스포츠·연예계 잇따른 선행

류현진·송승헌 1억원 기부 엑소·장근석 팬들도 동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째인 20일에도 수가 희생자 소식이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큰 슬픔에 빠졌다. 정부의 무능한 구조 작업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 항의 방문을 요구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예계와 스포츠 스타들은 기부를 하거나 현장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슬픔과 실의에 빠진 실종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준기

◆연예·스포츠 스타 릴레이 성금

미국 프로야구 LA다저스의 류현진과 국내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김광현을 비롯해 배우 송승헌 온주완, 영국 가수 코니 탤벗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기부 소식을 전했다.

류현진은 세월호의 실종자들을 위해 구조작업과 구호물품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1억원의 구호금을 보낼 예정이다. 그는 "얼리세나마 사망자 유족과 실종자 가족 등 사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안산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SK의 에이스 김광현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송승헌은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작업에 투입된 인력들을 위해 구세군에 1억원을 쾌척했다. 이 금액은 세월호 침몰 사고 조사를 위해 투입된 자원 봉사자들과 지원자들의 구호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구세군 측은 온주완이 침몰 사고 관련 구조를 돕는데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한 소식을 전했다.

또 지난 2007년 만 6세에 영국 ITV의 모디션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던 가수 코니 탤벗도 기부 소식을 전했다. 코니 탤벗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슬픈 시기를 맞은 한국으로 내일 떠난다. 콘서트 수익금을 여객선 사고희생자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코니 탤벗은 27일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코니와 친구들의 행복한 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정구·박인영 자원봉사

개그맨 김정구와 배우 박인영이 지난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희생자와 관련 봉사활동을 위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박인영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구세군 홍보부장님과 친구 2명, 매니저 오빠들 2명하고 같이 진도로 갑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개그맨 김정구 역시 지난 17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자 진도로 자원봉사 가는 길입니다. 아이들도 저도 무사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김정구는 한국폴리텍3대학 강릉캠퍼스에서 산업잠수학을 전공했으며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숙한 스타 팬덤

한류스타 장근석과 이준기 팬들이 세월호 구조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장근석 공식 팬클럽 측은 18일 오후 "세월호 사고 현장 인근 농협하나로마트로 송금한 내역을 공식 팬카페에 게시했다. 마트에서 체육관 현장과 실시간 연락해 필요한 물품들을 지금도 배달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무려 500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물품 구매에 사용했다.

이준기의 팬들도 팬카페에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팬들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모인다면 기적은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모금 진행합니다"라며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또 엑소, B.A.P, 인피니트, 빅스, 갓세븐 등 국내 아이돌 그룹 팬들은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진도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이유 팬클럽 아이유닷컴도 18일 트위터로 기부 소식을 전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성숙해진 팬덤 문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류스타 팬들도 동참 의지를 보이고 있어 도움의 손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하나Free상품	할인혜택	마일리지혜택
자유여행만들기	최대 30%	
항공권 + 해외호텔	해외호텔 10%	1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1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해외호텔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총 금액의 1% 마일리지 추가적립

혜택 조건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223

www.hanatourist.com

악동뮤지션 2주째 독주

'괴물 신인' 악동뮤지션(사진)이 2주째 음원차트 정상을 달리고 있다.

악동뮤지션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 '200%'는 20일 멜론·올레뮤직·네이버뮤직·다음뮤직·지니·몽키3 등 6개 음원차트 실시간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7일 공개 직후 10개 음원차트 정상을 싹쓸이한 이 곡은 14일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엠넷과 벅스뮤직에서는 2위에 올랐다.

'200%'는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사랑 노래로, 밤새 고백을 준비했지만 막상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떨리는 마음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다.

세월호 참사로 신곡 발표가 미뤄지고 음악방송이 결방되고 있어 악동뮤지션의 독주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 incher

홍가혜 /MBN 뉴스특보 방송 캡처

SBS 뉴스특보 방송 캡처

'웃음' '거짓' '실언' 재난 보도

뉴스 속보 경쟁 매몰 연일 방송사고 '비난'

SBS 기자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와 불안을 부추기는 진행 태도가 국내 재난 방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SBS는 20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여객선 세월호 침몰'에서 김도현 해군특수잠수부대(SSU) 전우회 회장과 인터뷰를 했다.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SBS 기자 2명의 모습이 비쳐졌고 오른쪽에 있는 기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던 것이다. 사태를 파악한 현장 관계자들은 웃음을 멈췄지만 이미 웃는 모습이 약 5초 동안 방송된 상태였다.

이에 시청자들은 "웃음이 나오나? 어이가 없다" "온 국민이 애통한데 왜 웃나?" 등의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난 방송 관련 보도 태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취재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대신 속보 단독 경쟁에 매달려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지난 18일 MBN 뉴스는 세월호 사고를 보도하는 과정 중 자신을 민간인 잠수부라고 소개한 홍가혜씨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홍가혜씨는 인터뷰에서 "현장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말했다. 민간 잠수부들과 관계자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장비 지원이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아 수색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터뷰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과거 홍씨가 한 거짓말에 대한 자료 및 증거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에 MBN은 이동원 보도국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과문을 게재했다.

실언과 불안을 조장하는 진행도 지적됐다. 앞서 16일에는 박진규 JTBC 기자와 황현택 YTN 앵커가 비인간적인 인터뷰와 과장된 보도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전효은기자 jeseki@metroseoul.co.kr

드라마 맛 살리는 쫄깃 사투리

몰입 조승우·강하늘 — 변신 김희선 — 퓨전 승리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 그룹 빅뱅의 승리 /SBS 제공

배우들의 사투리 연기가 작품과 인물의 매력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사투리가 개그 소재로 사용되는 것에 반기를 드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조승우·김희선·강하늘·승리의 사투리 구사는 극의 몰입도를 높이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고 있다.

최근 전라도 사투리로 시선을 사로잡은 배우는 조승우다. 인간적이면서 생활적이기까지 한 그의 사투리 연기는 의문투성이인 SBS 월화극 '신의 선물 - 14일'에서 숨쉴 틈을 제공하고 있다.

극중 전직 경찰이자 흥신소 직원인 기동찬 역을 맡은 그는 전설적인 경찰다운 싸움 기술과 치밀한 수사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무심코 내뱉는 듯한 전라도 사투리와 애드리브로 시청자의 공감을 사고 있다.

김희선도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당찬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참 좋은 시절'에서 심계림 대부업체 직원이자 강동석(이서진)의 언안연 차해원으로 출연 중인 그는 기존의 고고한 모습에서 탈피해 억척녀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청바지에 대충 묶은 듯한 머리가 경상도 사투리와 어우러져 김희선의 연기 변신을 극대화하고 있다. 툴툴거리는 듯한 빠른 대사처리와 과격하게 들리지만 정감 있는 사투리 구사가 역할과 김희선을 일치시킨다.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에서 강하늘과 승리는 사투리로 전혀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강하늘은 부산 사투리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실제 부산 출신인 그는 거친 남자를 상징했던 부산 사투리가 부드러울 수도 있다는 걸 강동주 역을 통해 보여줬고 첫사랑 윤수완(남지현·구혜선)만을 바라보는 순수 청년의 매력을 배가시켰다는 분석이다.

사투리 연기와 함께 짧은 출연에도 다양한 감정 연기를 선보여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한번은 해보고 싶었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역할이었다"고 출연 배경을 말했다.

그룹 빅뱅의 승리는 같은 작품에서 특이한 충청도 사투리로 감초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맡은 테디 서 역은 충청도 출신에 미국 텍사스에서 온 119 구조대원으로 사투리와 영어를 섞어 구사한다. 다소 정신 없어 보이는 인물이지만 활발한 성격인 승리와 부합한다는 평가와 함께 연기 데뷔 합격점을 받았다.

광주 출신인 승리는 제작발표회에서 "충청도 사투리를 한 달 동안 연습했는데 첫 촬영 날 감독님이 5분 줄 테니까 충청도 전라도 사투리 중 고르라고 해서 드라마가 이런 거구나 싶었다. 영상미 잘 계유"라며 사투리 연기에 얽힌 뒷이야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효은기자

SBS 월화극 '신의 선물 14일' 조승우 /SBS 제공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 김희선 /KBS 제공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 강하늘 /SBS제공

"류승룡, 한국의 로버트 드니로"

카바예 감독 공동작업 러브콜
'표적' 칸 초청 이어 현지 극찬

류승룡(사진) 주연의 영화 '표적'이 칸 영화제 초청에 이어 원작 제작진의 극찬을 받았다.

'표적' 측은 원작 제작사인 고몽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원작인 '포인트 블랭크'의 제작사 고몽은 1895년 설립돼 현존하는 영화사 중 가장 오래된 프랑스 최대 규모의 영화사다. '레옹' '제5원소' '언터처블: 1%의 우정' 등은 국내에도 잘 알려진 고몽의 작품들이다.

'표적'을 본 고몽 측은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으며 류승룡의 연기가 매우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원제작사가 리메이크된 영화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며 '표적'의 해외 개봉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포인트 블랭크'를 연출한 프레드 카바예 감독은 "류승룡의 연기는 카리스마 넘치고 절제적이다. 강렬하면서도 감성적인 면이 있다"며 "한국의 로버트 드니로와 같다고 생각한다. 향후 같이 작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류승룡의 해외 진출 여부에 관심을 모았다.

'표적'은 다음달 14일 개막하는 제67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돼 국내 개봉(30일)을 앞두고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주로 스케일이 큰 액션이나 호러·판타지 등의 장르 영화들이 소개되는 섹션이다.

초청된 영화들은 상업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추면서도 작품적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한국영화로는 2005년 김지운 감독의 '달콤한 인생', 2008년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에 이어 세 번째다.

공식 초청 소식을 접한 창 감독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우리 작품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 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배우·감독 고슬링 2년 연속 칸 초청

'온리 갓 포기브스' 주연, '로스트 리버' 연출

'액션 히어로' 라이언 고슬링(사진)이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 2년 연속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는다.

고슬링은 직접 각본과 연출을 맡은 영화 '로스트 리버'가 제67회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공식 초청돼 영화제를 찾는다. '로스트 리버'는 저수지 수중 도시로 가는 비밀 입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판타지 스릴러다.

이 영화에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여가서 역으로 친숙한 시얼샤 로넌, '진저 앤 로사'의 크리스티나 헨드릭스, '플레이스 비욘드 더 파인즈'의 에바 멘데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연한다.

고슬링은 2011년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드라이브'와 지난해 경쟁부문에 초청된 '온리 갓 포기브스'의 남자 주인공에 이어 '로스트 리버'의 감독으로 4년 사이 세 차례나 칸을 찾게 됐다.

한편 24일 국내에 개봉되는 '온리 갓 포기브스'는 고슬링의 고독한 카리스마와 거친 남성적 매력이 돋보이는 하드보일드 액션 누아르다. /유순호기자

이색 예고 "시청자 잡아라"

패러디·만화로 작품 특징 살려

SBS 새 주말극 '기분 좋은 날' 예고 영상. /SBS 제공

SBS 새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 예고 영상 중 차승원. /SBS 제공

안방극장 시청률 경쟁이 드라마 예고 영상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인물 소개나 첫 회 미리보기 차원을 넘어 연가·예능프로그램을 패러디 하거나 만화와 실사를 조합한 이색적인 화면 구성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SBS 새 주말극 '기분 좋은 날'은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를 패러디한 'K밥(K BOB)스타 사위 오디션' 예고편을 공개해 큰 반응을 얻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 엄마 한송정 역의 김미숙과 첫째 딸 다애(황우슬혜)·둘째 다정(박세영)·셋째 다인(고우리)은 'K팝스타' 심사위원 양현석·박진영·유희열이 있던 심사석에 앉아 있다.

이어 사위 후보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서재우(이상우)는 "부모님이 참새방앗간이라는 식품기업을 운영 중이다. 좋아하는 음식은 가래떡이다"고 말한 뒤 기타를 치면서 "가래떡 먹었네. 그런데 걸렸네"라는 노래를 진지하게 불러 웃음을 자아낸다. 관건은 현빈 역의 정만식이다. 그는 생김새 때문에 심사위원에게 인사하기도 전에 불합격되며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달 26일 첫 방송되는 '기분 좋은 날'은 홀로 키운 세 딸의 완벽한 결혼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려다 오히려 시집을 가게 된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그리는 코믹 드라마로 재치 있는 예고 영상이 작품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SBS 새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예고편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조화된 독특한 영상을 선보여 화제다.

'태어나 단 한 번도 형사를 꿈꿔 본 적 없다. 강남 한복판을 질주하는 미숙하지만 뜨거운 청춘!'이라는 자막과 함께 강남경찰서 신입 경찰인 은대구(이승기)는 총을 들고 범인을 쫓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전설적인 수사관 서판석(차승원)은 냉철하고 프로다운 눈빛을, 신입경찰 어수선(고아라)은 통통 튀는 여경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SBS '별에서 온 그대'에 이어 이 드라마의 CG를 담당한 이준석 SBS A&T 차장은 "유인식 PD와 유쾌하고 만화 같은 느낌을 담아 보자는 의견을 모았다. 많은 분이 좋아해줘 힘이 난다"고 말했다.

'쓰리데이즈'의 후속으로 30일 첫 방송되는 이 드라마는 꽃미남 경찰 4인방이 강남경찰서 강력반에 입성한 뒤 전설적인 수사관과 함께 펼치는 청춘 로맨스 수사극이다. /전효진 기자

미셸 위 3년 8개월 만에 우승컵

LPGA 롯데챔피언십 4타차 2위서 대역전

재미동포 골퍼 미셸 위(25·나이키골프)가 3년 8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미셸 위는 20일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6383야드)에서 막을 내린 롯데챔피언십(총상금 17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앤절라 스탠퍼드(미국·12언더파 276타)를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미셸 위는 2010년 8월 캐나다 여자오픈 이후 3년 8개월 만에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2009년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을 포함해 통산 세 번째 우승의 영예를 맛봤다. 오랜 시간 슬럼프를 겪어온 미셸 위는 고향인 하와이에서 완벽히 회복한 모습을 보여 의미를 더했다.

미셸 위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대역전극으로 고향 팬들에게 짜릿한 기쁨을 선사했다. 스탠퍼드에 4타 뒤진 공동 2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미셸 위가 대회 직후 18번홀에서 훌라춤을 추며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AP·뉴시스

그는 5번홀까지 두 타를 줄이며 선두를 압박했다.

스탠퍼드는 6번홀에서 한 타를 잃어 버디를 잡은 미셸 위에게 한 타 차 추격을 허용했고, 8번홀에서 티샷을 그린 위에 올리지 못하고 고전해 파를 지킨 미셸 위와 공동 선두가 됐다.

미셸 위는 12·13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았고, 16번홀에서도 버디를 적어내며 두 타 차 1위를 질주했다. 17번홀 파와 18번홀 보기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스탠퍼드 역시 보기와 파를 기록하며 미셸 위의 우승을 도왔다.

세계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4라운드에서만 5타를 줄이는 무서운 뒷심을 보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단독 3위에 올랐다. 미셸 위와 공동 2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김효주는 한 타를 줄이는 데 그치면서 4위(10언더파 278타)로 경기를 끝냈다.

최운정(24·볼빅)과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이 공동 5위(9언더파 279타), 박세리(37·KB금융그룹)가 6언더파 282타로 공동 9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돋보였다.

한편 이날도 미셸 위·김효주 등 일부 선수들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검은 리본을 머리에 달고 섬 했다.

/장순휘기자 suno@metroseoul.co.kr

'절치부심' 윤석민 부활 조짐

시즌 세 번째 등판 5.2이닝 1자책 호투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트리플A에서 시즌을 맞이한 윤석민(28·노포크 타이즈·사진)이 살아나고 있다.

세 번째 등판서 5이닝 이상 투구를 선보인 윤석민이 현지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볼티모어 선은 20일 "윤석민이 한 걸음 전진했다"며 "마이크 폰테노에게 홈런을 내주는 단 한 차례 실수만 범했다"고 보도했다.

윤석민은 19일 노포크 하버파크에서 열린 더럼 불스(탬파베이 레이스 산하)와의 홈경기에서 5.2이닝 8피안타 2실점(1자책)을 기록한 바 있다. 비록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실점 이하)는 실패했지만 미국 진출 후 가장 많은 이닝 소화다. 여기에 볼넷이 없었다는 점은 더욱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앞서 윤석민은 마이너리그 2경기서 각각 2.1이닝 11피안타 9실점, 4.1이닝 6피안타 3실점으로 크게 부진한 바 있다. 전편 승리 없이 2패 평균자책점 9.49를 기록 중인 윤석민은 오는 23일 또는 24일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정성훈기자 youa@

추신수 5경기 연속 안타

2루타만 2개 텍사스 5연승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0일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올 시즌 처음으로 한 경기 3안타를 친 추신수는 타율을 0.290에서 0.314로 끌어올렸다. 6일 만에 3할 타율에 복귀했고, 16일 시애틀 매리너스전부터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1회말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나간 추신수는 엘비스 앤두르스와 알렉스 리오스의 연속 안타 때 홈을 밟아 3경기 연속 득점도 기록했다.

3회에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2루타를 만들었고, 4-1로 앞선 4회 2사 2루에서도 2루타를 쳐내 2루주자 조시 윌슨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7회 네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을 당했다.

이날 텍사스는 1-1이던 4회 터진 프린스 필더의 역전 솔로포 등 13안타를 집중시키며 6-3으로 승리했다. 5연승을 달린 텍사스는 11승 7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선두 오클랜드 어슬레틱스(12승 5패)를 1.5게임 차로 추격했다.

/유순호기자

첼시, '꼴찌' 선덜랜드에 충격패

우승을 노리는 강호 첼시가 꼴찌 선덜랜드에 발목을 잡히는 이변이 벌어졌다.

첼시는 20일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덜랜드에 1-2로 역전패했다. 이날 경기에서 첼시는 베테랑 스트라이커 사뮈엘 에토오가 전반 12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강팀의 면모를 이어갔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선덜랜드는 5분 뒤 신예 공격수 코너 위컴이 동점골을 터뜨렸고 후반 37분 리버풀에서 임대한 파비오 보리니가 페널티킥을 득점으로 연결해 역전승을 낚았다.

조세 모리뉴 첼시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축하한다"는 말을 남발하며 "우리 선수들의 훌륭

한 경기를 축하하고 선덜랜드 선수들의 승리도 축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주심과 심판위원장에게도 "마이크 딘 심판, 마이크 라일리 심판위원장의 믿을 수 없는 멋진 기량도 축하한다"고 덧붙여 판정 불만을 반어적으로 드러냈다.

이로써 첼시는 승점 75에 머물러 3경기를 남겨두고 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 리버풀(77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

'슬럼프' 메시 연봉 올려 위로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가 최근 부진에 빠진 간판 골잡이 리오넬 메시(27)를 연봉 인상으로 격려하기로 했다.

조셉 바르토메우 바르셀로나 회장은 20일 스페인 에스포르트3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바르토메우 회장은 "메시가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바르셀로나 현동조합원들은 메시가 우리 클럽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메시를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토메우 회장은 메시를 격려하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메시는 지난해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정성훈기자

프로배구 전적 20일

(heading likely 프로축구 전적)

서울	0	1	포항
경남	0	0	상주
제주	1	0	인천

프로야구 전적 20일

■ 잠실

롯데	000	000	102	3
두산	000	200	000	2

■ 문학

KIA	110	000	002	4
SK	010	000	000	1

■ 대전

LG	031	001	201	8
한화	040	121	10X	9

■ 마산

삼성	000	030	002	5
NC	001	000	000	1

수지와 함께하는
GO! LA 원정대!
MLB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다운로드 받으면,
수지와 함께! LA현지에서!
다저스 경기를 관전할 수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MLB APP DOWNLOAD
본 프로모션은 미국관광청과
MLB가 함께합니다
USA
MLB
www.mlb-korea.com